

✦ 참여작가 参加作家



김택민
킴·테민
Taemin, Kim

작가에게 그림은 세상으로 나아가게 만드는 강력한 힘이자 타인과 나를 연결하는 소통의 도구다. 삶이 주는 즐거움을 캔버스라는 소통의 무대 위에 율려놓았던 작가는 행복, 사랑, 공존과 같은 다양한 감정들을 작가만의 색채를 가지고 캔버스에 표현하였고 관람객은 이에 공감하고 대화의 문을 열고 소통하게 되었다. 작가에게 그림은 그림을 넘어 삶이고 지유였다.

킴·테민にとって、絵画は世界へと踏み出すための力強い原動力であり、他者と自分をつなぐ大切なコミュニケーションの手段である。人生の喜びをキャンバスという交流の舞台に載せて、幸せ、愛、共存といった多様な感情を作家ならではの色彩で表現した。観覧者はその作品に共感し、対話の扉を開き、交流が生まれた。キム・テミンにとって、絵画は単なる表現を超えたものであり、人生そのものであり、戀しそのものであった。

2024년 서울-한강비엔날레, 특별상 2024년 Nomade Gallery, France, 입주작가
2024년 「ソウル-漢江ビエンナーレ」 特別賞 2024년 프랑스 Nomade Gallery 入居作家



김수
킴·스
Soo, Kim

원석을 실형하고 사람을 그림 때 눈을 중심으로 얼굴의 모양에 변형을 주어서 아름다움을 강조하는 작가이다. 드로잉에 좋은 재능이 있어서 선생님과 동료 작가분들의 특색을 짧은 시간에 알아채어 캔버스에 담았다.

原色の探求を重ね、人物を描く際には目を中心に顔の形を自由に変化させることで、美しさを際立たせる作家だ。卓越したドローイングの才能を持ち、短時間で先生や仲間たちの特徴を見抜き、それをキャンバスに鮮やかに描き出した。

2024년 2024년 나를 찾아서 개인전시작 – 조형갤러리(인사동)
2024년 個展「私を探して」彫形ギャラリー(ソウル)
2024년 제17회 전국 장애인 도예공모전 금상
2024년 第17回全国障害者陶芸公募展 金賞



이현우
이·현우
Hyunwoo, Lee

일상에 섞여 있는 자연스러움을 자신만의 색채와 느낌으로 표현하는 화가이다. 그림을 그릴 때 자기 생각을 붓으로 표현하는 것에 행복을 느끼며, 작품을 관람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한 감동을 안겨주는 화가이다.

日常に溶け込んだ自然な瞬間を、自分ならではの色彩と感覚で表現する。絵を描く際、自分の思いを筆に込めて表現することに喜びを感じている。その作品は鑑賞者に穏やかな感動をもたらした。

2023년 꿈피움 그림이아기 공모전 – 입선
2023년 夢を育む絵物館公募展 入選
2024년 전시회 "우리들의 행복한 성장"
2024년 그룹展 "私たちの幸せな成長"(ソウル)



곽희상
카·히상
Heesang, Kwak

어린 시절부터 교통수단 특히 버스에 자하철에 유독 관심이 많던 작가는 버스 그림을 그릴 때 가장 행복해하며 세상 속에 나를 찾아간다.

幼いころから交通手段、特にバスや地下鉄に興味があった作家は、バスを描く時が最も幸せで、世界の中で自分を見つける瞬間を感じる。

2023년 아트허브 엔스카페 단체전
2023년 그룹展「アートハブ」Nsカフェ(소울)
2024년 키무스튜디오/메디체크 특별전 디자이너 나를 만나는 시간/코엑스전시장/
2024년 그룹展「KIMUSTUDIO/MEDICHECK 特別なデザイナー 私と出会う時間」COEX(소울)



신현빈
신·현빈
Hyeonbin, Shin

시각과 촉각의 경계를 넘나들며 다양한 재료로 작업하는 작가이다. 오감으로 느끼고 만지는 감각을 예술로 승화시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작품을 창작하고자 한다. 장예를 가진 사람들의 예술적 표현을 통해 소통하고 편견을 줄이는 데 집중한다. 세상을 바라보는 다양한 시각과 감정을 연결하여 공감과 변화를 모색하는 예술가이다.

視覚と触覚の境界を越え、様々な素材で作品を制作している。五感で感じたり触れたりする感覚をアートとして昇華させ、誰もが楽しめる作品を制作することを目指している。障害者の芸術的表現を通じてコミュニケーションを回り、偏見を減らすことに焦点を当てている。シン・ヒョンビンには世界を見つめる様々な視点と強みをつなげ、共感と変化を構築する芸術家だ。

2016년 제24회 전국장애인학생미술공모전 보건복지부장관상 수상
2016년 第24回全国障害者学生美術公募展 保健福祉部長賞
2024년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개관 10주년 기념작 전시
2024년 반얀트리 클럽 앤 스파 서울 개관 10주년 기념誌 出品



강산아
칸·산아
Saana, Kang

외롭거나 슬픈 때, 평상시와 다른 기분일 때, 반가운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나에게 힘이 되어주는 가족들을 생각할 때, 나는 쉬지 않고 그림을 그린다.

寂しいとき、悲しいとき、いつもと違う気分になったとき、嬉しい人に出会ったとき
私のことを支えてくれる家族のことを思うとき
私は休むことなく絵を描き続ける。

2024년 강남교육청 주관 장애인영재 발굴 프로젝트에서 미술영재로 선발됨
2024년 ソウル特別市江南区教育支援庁 障害者英才発掘プロジェクトで 美術英才選出
2024년 독일 뮌헨 MUCCA 주최 전시 초대작가
2024년 「MUCCA主催展(ドイツ・ミュンヘン)」招待作家



박진한
박·진한
Jinhan, Park

사랑하는 마음을 그림을 그리는 행동력이 된다. 오직 그 그림 한 장에 나의 마음이 담겼다. 황토빛 사랑이 커져 노란빛이 되고 또, 반쪽의 희색이 큰 사랑이 된다. 혼자서 이룰 수 없는 큰 사랑은 함께할 때 의미가 있고, 실현될 수 있다. 만다라 그림을 돌리보며 마음의 평안을 얻는 시간을 가져 본다.

愛する心は絵を描く原動力となる。烏鶯橋(オジャッキョ)の一枚の絵には自分の心が込められている。黄土色の愛が次第に黄色に変わり、そして灰色がかった大きな愛へと広がる。一人では成し得ない大きな愛は、共にいる時こそ意味があり、実現できる。マンドラを眺めながら、心の安らぎを得る時間を持っている。

2024년 "첫 눈이 내리는 날" 수필집 ebook 출간
2024년 エッセイ集「初雪が降る日」 eBookで出版
2024년 "우리가 꿈꾸는 동네" (제2회 범죄피해 단체인) ebook 출간
2024년 「私たちが夢見る街」 eBookで出版



최석민
체·소쿠온
Seokmin, Choi

사람과의 눈 마주침이 힘들었던 나는 자연스레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았다. 나에게 동물은 가장 친한 친구였고, 최고의 작품 모델이었다. 동물의 눈을 통해 세상은 시선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나의 작품은 순수하고 솔직하며 따뜻한 위로가 된다.

人と目を合わせるのが苦手だった私は、自然と一人で過ごす時間が多くなった。私にとって動物は親友であり、最高の作品モデルだった。動物の目を通して異色の視線で世界を見る私の作品は、純粋で素直で心に温かい慰めを与えてくれる。

2019~2024년 밀알문화예술센터 보릿집은 아래도 소속 작가
2019~2024년 밀알문화예술센터보릿집오션아울드 所属作家
2024년 기쁜우리미술공모전 특선
2024년 喜びわたち美術公募展 特選



안석희
안·소희
Seokhye, An

우리는 모두 아팠을 때 순수하고 따뜻한 마음을 기렸던 시기가 있으리라 생각한다. 나의 세계가 어린이들에게는 공감을, 어른들에게는 피스한 그 추억의 마음을 한 번 더 회상할 수 있다면 좋겠다는 마음을 담아 따뜻하고 밝은 색깔로 동화적인 작업들 진행하고 있다.

모든 경험이란 현대 바로소 나라는 사람들 구성하고, 그 경험 속에서 감각하는 나의 그림자가 되어가는 듯하다. 나 자신을 기억하며, 어떤 작품은 단색의 드로잉으로 정해 침소년으로서 지내었던 과거의 경험을 일부 담아내었다.

私たちは皆、子供の頃、純粋で温かい心を持った時期があると思う。私の世界が子供たちには共感を、大人には温かい思い出を呼び起こすことができたいという気持ちを込めて、暖かく明るく色合いで童話の想像力が際立つ作品を制作している。
全ての経験が集まって私という人間を構成し、その経験の中で感覚が私の影になっていくような気がする。自分自身を思い出しながら、今回の作品は単色のドローイングで、障害を持っていた青春時代を過ごした過去の経験を少し盛り込んだ。

2020년 한국교육청연합회 교육장애인 아티스트 온라인 전시
2020년 그룹展「韓国筋肉障害者協会 筋肉障害者アーティストオンライン展示」
2024년 "다섯 번째 글 '빛과 밤'" 갤러리 비한 단체전
2024년 그룹展「昼と夜」ギャラリーBINCAN(소울)



이지은
이·진운
Jiun, Lee

"마음을 빛내주는 아티스트", 앨리스(ALICE) 라는 이름으로 음악과 그림 작업을 하고 있다. 예술은 아름다움을 표현하고 창조하는 것 이상의 의미로 세상에 자신을 가장 '나답게' 보여주고 모든 표현을 담을 수 있는 유일한 매개체라고 생각한다. 시고로 휠체어에서 지금의 혼자 걷기까지 이른 여정 속에서도 세상으로 나아가길 수 있었던 희망이 음악과 그림이었기에, 앨리스의 예술은 단순히 아름다움을 넘어 따뜻한 메시지로 많은 이들의 마음을 빛내게 비추기를 희망한다.

「心を輝かせるアーティスト」、アリス(ALICE)という名前で音楽と絵の作品を制作している。芸術は美しさを表現し、創造することを超え、世界に対して最も「自分らしい」姿を見せ、あらゆる表現を込めることができる唯一の手段だと考えている。事故で車椅子生活を送り、現在は一人で歩けるようになるまでの苦しい道程の中でも、音楽と絵が希望の光だった。「アリス」の芸術が、単なる美しさを超え、温かいメッセージとともに、多くの人々の心を明るく照らす存在となることを願っている。

2024년 인천국제미술관원리, 외상 2024년 대한민국 현대미술대전, 외상
2024년 인천국제美術舘原力、外賞 2024년 大韓民國現代美術大展 外賞

NEW WORLD